

佛陀傳記故事研究*

— 敦煌變文의 八相故事와 연관하여 —

禹在鎬** · 南敏洙*** · 崔桓****

— <目 次> —

I. 緒 言	1. 《太子成道經》
II. 八相成道の 연원	2. 《八相變》
—《佛所行讚經》의 佛陀形象	IV. 結 論
III. 敦煌變文의 傳記敍事	

I. 緒 言

古代中國의 敍事文學에서 人物傳記가 하나의 문학장르로 정착된 것은 司馬遷이 저술한 《史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史記》 이전에도 《春秋左氏傳》이나 《國語》 등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서사고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가로서의 서술태도나 본기와 열전을 결합시킨 시도 등, 《史記》의 本紀나 列傳에 기록된 歷史 서술의 방법을 감안해 볼 때, 《史記》는 진정한 의미의 傳記敍事文學이라고 하겠다. 《史記》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傳記敍事文學傳統은 南北朝時代에 이르러 軼事小說(《世說新語》처럼)과 志怪小說의 창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南北朝時代에는 《史記》의 傳記敍事文學과 또 다른 형태의 人物傳記敍事文學이 나

* 이 연구는 2006 학년도 영남대학교 인문학육성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부교수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타나는데, 佛敎의 전파에 따라 종교적 인물의 행적을 그려내는 人物傳記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梁 慧皎의 《高僧傳》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佛敎經典의 대규모 번역에 따라 釋迦牟尼의 人物傳記 역시 대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史記》가 司馬遷 개인의 독특한 가치관 - 즉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를 둔 역사인물선정 및 객관적으로 그 인물을 그리려는 寫實的精神 - 을 담고 있다면, 佛經에 나타나는 釋迦牟尼傳記는 종교적 열정과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인간 석가모니의 形象을 세계의 구원자로 형상화하면서 浪漫的敍事精神을 많이 담고 있다.¹⁾ 따라서 佛經속의 佛敎傳記散文들은 中國古代敍事文學에 새로운 자양분을 많이 제공하였으며 因果應報와 輪迴轉生 등의 佛敎思想은 中國古代敍事文學의 主題와 思想에 많은 계시를 주었다고 하겠다. 또 佛經에 엮여 보이는 佛院에 대한 낭만적·환상적 묘사 등은 中國古代散文文學의 예술과 기교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釋迦牟尼가 佛敎를 창시한 敎祖라는 점은 석가모니 인물전기의 주요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민중들의 敎祖崇拜는 傳記의 기술대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석가모니의 傳記는 민간문학예술과 적지 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敦煌에서 발견된 다수의 變文이 석가모니와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變文뿐 아니라 敦煌 莫高窟의 수많은 석가모니 本生圖와 經傳 變相畫는 南北朝時代에서 唐代에 이르는 시기의 釋迦牟尼傳記가 민간신앙의 대상이자 민간예술의 표현대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²⁾ 本考에서 다루

1) 金承鎬, 《韓國僧傳文學의 이해》, 서울 민족사, 1992, 33-38쪽. 사마천의 《史記》를 비롯하여 유교열전은 趣意部(自序)-行蹟部(本贊)-評結部(論贊)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고 대개 家系의 근원에서 출생 및 학업성취의 과정, 관리가 되어 經世濟民하는 행적 등의 儒家的立功觀에 근거하여 서술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高僧傳》이나 우리나라의 《均如傳》 등은 열전과 비슷하게 出生-行蹟-入滅 등의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표준이 되는 것은 석가모니전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八相成道’의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보다 神異한 능력, 異蹟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2) 남북조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佛院의 傳記를 다루고 있는 많은 佛經들이 번역

고자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전기문학 중에서 ‘八相成道’로 알려진 전기서사방식이 中國古代民間의 서사문학, 특히 敦煌變文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八相成道の 연원-《佛所行讚經》의 佛陀形象

석가모니의 傳記를 구성하는 일반적 서술형태는 흔히 ‘八相(降生-入胎-出胎-出家-降魔-成道-轉法輪-涅槃)’으로 불린다. ‘八相’의 전기서술형태가 굳어진 것은 석가모니가 생존했던 시대의 일이 아니라, 열반 이후 적어도 수백 년이 경과된 후의 일인 듯하다. 곧 초기 불교경전인 《阿舍經》 계열의 경전이 거의 구비되고, 大乘계열의 경전이 나타나는 시기를 전후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³⁾ 그 연대를 굳이 따져 본다면, 기원전 1세기에서

되었으며(《大莊嚴論經》·《撰集百緣經》·《般泥洹經》·《佛所行讚經》·《佛本行集經》), 後梁과 後秦·北魏 등이 통치하던 시기의 동황지역에서 수많은 석굴벽화가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석굴벽화는 총 492개라고 하는데 佛敎의 故事를 다루거나 釋迦牟尼 一代記를 제재로 하는 벽화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 석굴사원의 반영이 民間文學 특히 唐代에 흥성한 講經文 과 變文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 3)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경전의 형성은 석가모니 열반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의 일이라고 추측된다. 가령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으로 여겨지는 律藏이나 《法句經》, 《숫타니파아타(經集)》 등에 석가모니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지만, 여기에는 定型화된 ‘八相’의 서술형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중국불교의 한역경전으로 사정을 파악하고자 하면 더욱 복잡한데 예컨대 後漢시기에 번역된 《修行本起經》(竺大力, 康孟祥 共譯)이나 三國시대 吳나라의 支謙이 번역한 《太子瑞應本起經》 및 西晉시기의 竺法護가 번역한 《普曜經》 등은 梵語原本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八相의 순서에 따른 전기 서사의 형식들이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漢譯의 순서로 보면 《修行本起經》은 최소한 2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것이니 적어도 1세기를 전후한 시점에는 八相의 서술형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八相의 서술형태가 거의 완전하게 들어 있는 《佛所行讚經》은 宋의 승려 寶雲에 의해 5세기 중엽에 의해 번역되었으니 漢譯은 매우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原著者 馬鳴이 이 작품을 지은 것은 늦어도 2세기 초반일 것이라 생각되므로 작품의 성립연대로 보면, 《佛所行讚經》은 최초로 완성된 佛陀傳記라

기원후 2세기 정도의 일일 것이다. ‘八相’의 서술형태를 취하고 있는 불교 경전으로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매우 과장하여 표현한 《放光大莊嚴經》(梵語 ‘lalitavistra’) 같은 경전도 있지만, 馬鳴(asvaghosa: 기원후 1세기 후반~2세기 전반?)이 지은 長篇敘事詩 《佛所行讚經》(梵語 ‘Buddhacarita’)처럼 석가모니의 생애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리면서 宮庭敘事詩의 風格으로 표현한 경전도 있다. 저자 馬鳴은 원래 브라만교를 신봉하던 귀족계급의 인물로 불교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으나 脇尊者와 철학논쟁을 벌인 후, 脇尊者에게 감화되어 大乘佛敎에 귀의한 인물이다. 그는 카니시카대왕(쿠샨 왕조의 3대 왕, 서기 130년~150년경에 재위)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으며, 불교를 소재로 한 서사시를 많이 지었다. 그가 지은 《佛所行讚經》과 《孫陀利難陀(아름다운 난다)》는 인도 고대 서사문학의 白眉로 꼽히는 장편서사시라 할 수 있다. 《佛所行讚經》은 17장으로 이루어진 梵語原本이 남아 있다고 하며, 이는 漢譯本 《佛所行讚經》의 절반이 넘는 분량으로, 梵語原本의 내용은 漢譯本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경전을 漢譯本으로 번역한 사람은 南北朝時代 宋나라의 寶雲(기원후 376년~449년)인데, 그는 원래 涼州 사람으로 불교경전을 구하러 서역과 인도로 갔다가 그곳의 언어들을 배웠으며 나중에 長安으로 되돌아왔다. 서역의 승려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북중국에 와서 참선법을 가르치자, 보운은 그에게 참선을 배웠다. 후에 姚秦의 승려들이 불타발타라를 배척하자 그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면서 보운 역시 남방의 宋나라로 피신하여 揚州에 머무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도량사(道場寺)에 머물면서 불경 번역활동을 하였고, 나중에는 六舍寺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바로 육합사에 머무르는 시기에 《佛所行讚經》을 번역했다고 한다.⁴⁾ 漢譯

고 여겨지지만, 漢譯의 연대로 보면 매우 늦게 이루어져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여하간 《佛所行讚經》의 창작을 전후한 시기에 완전한 모습을 갖춘 석가모니의 전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는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후반까지라고 생각되므로 석가모니의 열반 시점을 근거로 따져보면 적어도 열반 이후 4~5백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비로소 석가모니의 완전한 傳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本 《佛所行讚經》은 梵語 원문의 맛을 살리기 위해 5권의 장편서사시로 지어졌는데, 전체는 28장, 즉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新脩大藏經(日本) 제4책에 실려 있는 漢譯本 《佛所行讚經》은 모두 5권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佛所行讚經》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작품은 석가모니 일생의 중요사건을 모두 담고 있을 뿐 아니라 ‘八相’ 傳記敘事方式의 定型化된 격식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佛所行讚經》 각 품의 내용을 ‘八相’의 형식에 따라 재배열하여 비교해보기로 하자.

** 八相成道の 구성과 《佛所行讚經》의 각 품

- ① 降生: 여기에 해당되는 《佛所行讚經》의 품은 없다. 보통 切利天에서 天神들의 권유로 보살이 降誕을 결정하고 지상의 국가들을 관찰하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生品>에서 한 두 구절의 詩로 언급되고 있으나 《佛所行讚經》에는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전설과 신화의 부분이므로 馬鳴이 일부러 기술하지 않은 듯하다.
- ② 入胎: 탄생 전후의 사실을 서술함.
<生品>: 석가모니의 家系와 出生에 얽힌 신비한 일화들을 서술하였다.
- ③ 出胎: 탄생 이후에서 성장까지.
<處宮品>: 生母의 죽음으로 인해 姨母인 고오타미에 의해 석가모니가 궁중에서 양육된다.
- ④ 出家: 궁중에서 현실의 고뇌를 느끼는 부분에서 궁중을 나가서 修道하는 것 까지 서술함.
<厭患品> · <離欲品> · <出城品> · <車匿品> · <入苦行林> · <舍宮悲憂品> · <推求太子品> · <瓶沙王詣太子> · <答瓶沙王品> · <阿羅藍鬱頭藍品>: 석가모니는 외출을 하였다가 노인 병자 시체 등을 보고 삼

4) 《出三藏記集》, 慧皎 撰, 北京 中華書局, 2003, 578쪽. <寶雲傳> 참조. 《대정신수대장경》 제4책의 제목에는 《佛所行讚經》의 번역자를 曇無讖이라 하였으나 《出三藏記集》 · 《高僧傳》 · 《歷代三寶記》 · 《開元釋教錄》 등에 모두 寶雲의 이야기가 거명되어 있으므로 번역자는 보운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鎌田茂雄의 《中國佛教史》(제3권, 장승, 1996) 81쪽을 참조.

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厭患品〉) 이에 淨飯王은 궁녀들과 동산을 마련하여 태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나 태자는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싫어한다.(〈離欲品〉) 다시 외출을 나가게 된 태자는 벌레들의 생존투쟁 및 농부들의 힘든 삶을 보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여 새벽에 몰래 城을 빠져 나온다.(〈出城品〉) 太子는 시종인 車匿과 이별하고 숲 속으로 들어간다.(〈車匿品〉) 태자는 숲 속에서 仙人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고생을 하고 또 仙人들의 苦行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기도 한다.(〈入苦行林品〉) 車匿이 궁중으로 되돌아오자 온 궁중은 비탄에 빠지고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태자를 꼭 찾아오도록 명령한다.(〈舍宮悲憂品〉) 왕의 신하 두 사람은 숲 속에서 왕자를 찾아 설득해 보나 실패하고 왕궁으로 되돌아온다.(〈推求太子品〉) 태자가 숲 속을 떠나 王舍城에서 걸식생활을 하는데 빔비사라왕은 태자가 轉輪王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만난 뒤, 태자가 전륜왕이 되도록 돕겠다고 제안한다.(〈瓶沙王詣太子〉) 太子는 결코 轉輪王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苦行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고 대답한다.(〈答瓶沙王品〉) 태자는 仙人들을 찾아 수행을 계속하며 아라람과 울두람의 두 仙人에게 명상을 배우나 고뇌하던 문제의 답을 얻지 못한다.(〈阿羅藍鬱頭藍品〉)

⑤ 降魔: 成道 직전의 태자는 魔王과 정신의 苦鬪를 겪음.

〈破魔品〉: 태자는 극심한 苦行 끝에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확신하고, 苦行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 정좌하여 명상을 시작한다. 명상정좌가 깊어지면서, 魔王 波旬이 나타나 태자를 위협하고 또 딸을 보내어 태자를 유혹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⑥ 成道: 정좌수도 끝에 佛道를 깨우침

〈阿惟三菩提品〉: 태자는 깊은 명상에 들어가 佛道를 깨우치고 중생들의 六道輪廻를 하나하나 관찰한다. 그리고 마침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낸다.

⑦ 轉法輪: 成道 후의 태자는 衆生教化를 시작함.

〈轉法輪品〉·〈瓶沙王諸弟子品〉·〈大弟子出家品〉·〈化給孤獨品〉·〈父子相見品〉·〈受祇桓精舍品〉·〈守財醉象調伏品〉: 부처님은 교진여 등 5명의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전한다.(〈轉法輪品〉) 佛陀는 우루빈라 가섭 등 異教徒에게 傳法하여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빔비사라왕도 교화하여 王舍城을 불교의 초기 근거지로 만든다.(〈瓶沙王諸弟子品〉) 佛陀는 舍利弗, 目蓮, 大迦葉의 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大

弟子出家品>) 佛陀는 給孤獨 長者를 교화하고, 급고독 장자는 祇陀太子로부터 園林을 사서 祇桓精舍를 이룩한다.⁵⁾(<化給孤獨品>) 佛陀는 카필라성으로 가서 淨飯王과 釋迦族의 귀족, 인민들을 교화한다. 불타는 祇桓精舍가 완공되자 코살라국으로 가서 婆斯匿王과 귀족들을 교화하였고 신통력으로 外道들을 굴복시킨다.(<受祇桓精舍品>) 佛陀는 天上에 올라가 生母 摩耶夫人을 위해 설법하고, 부처님의 從弟 提婆達多是 취한 코끼리로 부처님을 해치려하나, 부처님은 이를 조복시킨다.(<守財醉象調伏品>)

⑧ 涅槃: 佛陀가 涅槃하던 전후의 사정을 서술함.

<菴摩羅女見佛品> · <神力住壽品> · <離車辭別品> · <涅槃品> · <大般涅槃品> · <歎涅槃品> · <分舍利品>: 암마라녀의 공양을 받은 것부터 마왕에게 열반의 시기를 알리고 열반을 할 때까지의 정황과 (<菴摩羅女見佛品> · <神力住壽品> · <離車辭別品> · <涅槃品> · <大般涅槃品>) 불제자들이 불타의 열반을 탄식하는 장면과 유해의 화장 및 사리탑 건립, 아소카왕이 사리탑을 열고 새로 8만여 개의 사리탑을 건립하는 장면까지 서술되었다.(<歎涅槃品> · <分舍利品>)

위에서 본 것처럼 降生 이전의 부분을 제외하면, 《佛所行讚經》은 ‘八相’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 물론 馬鳴이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후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馬鳴은 出家 전후의 사정에 대해 10개의 품을 두어 집중적으로 서술하였고, 降魔와 成道에는 각기 한 개의 품을 두어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였으며, 제자들에 대한 傳道의 사정(轉法輪)은 7개의 품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그리고 涅槃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도 7개의 품을 두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자.

저 코끼리 하늘세계에서 내려와 모테에 머무니, 그 어머니 근심과 걱정을 모두 떠나 허망하고 거짓된 마음 일으키지 않았네. (마야부인은) 저 시끄러운 세속을 싫어하고, 고요하고 한가한 숲 속에 머물길 즐겼네. ……

5) 원문에 祇桓精舍로 쓰여 있으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祇園精舍로 알려져 있다.

(중략)…… 자신의 광명이 비추니, 마치 해가 등불의 밝음을 빼앗는 듯하고, 보살의 황금 빛 몸, 역시 이와 같다네. 올바르게 잠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고 조용하게 일곱 걸음 걸으니, 발바닥은 편안한 평밭인데, 걸음마다 환히 빛나니 일곱 개의 별인 듯 했네. 백수의 왕 사자의 걸음걸이로, 사방을 관찰하시면서, 진실한 뜻을 두루 깨치셨으므로, 능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네. 이번 태어남은 부처가 되는 태어남이니, 곧 최후의 마지막 태어남이 되리. 나는 이 한번의 생애에서, 마땅히 일체중생을 건져야 한다.⁶⁾

<生品>은 《佛所行讚經》의 첫 번째 章인데, 석가모니의 탄생을 주제로 하는 장이다. 摩耶夫人이 코끼리가 내려오는 태몽을 꾸었다는 것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일곱 걸음을 걷고 부처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後代에 점점 더 神話化되는데, 보살이 탄생 전에 忉率天에 머물고 있었다든가, 뜻 天神의 요청으로 중생들을 구원하기로 했다고든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天上天下唯我獨尊’을 외쳤다고 하는 식으로 확대되어 神話化되는 것이다. 아마 馬鳴의 시대에 이미 석가모니를 神格化한 많은 전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馬鳴도 이러한 전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馬鳴이 생존했던 카니시카왕 통치시기는 대승불교운동이 한창 발흥하기 시작할 때였고, 또 佛敎美術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생애와 연관이 있는 많은 전설들이 존재하였다. 馬鳴은 이런 재료들을 수집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에 많이 삽입하였다. 6달타의 태자 시절, 출가 이후의 여러 가지 神異한 行蹟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馬鳴은 특히 석가모니의 고결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6) 《佛所行讚經》(新脩大藏經, 第4冊), 제 4 쪽 於彼象天后, 降神以處胎. 母悉離憂患, 不生幻偽心. 厭惡彼諂俗, 樂處空閑林. …… 自身光照耀, 如日奪燈明. 菩薩眞金身, 普照亦如是. 正眞心不亂, 安庠行七步. 足下安平趾, 炳徹猶七星. 獸王師子步, 觀察於四方. 通達眞實義, 堪能如是說. 此生爲佛生, 則爲後邊生. 我唯一生, 當度施一切.

(궁녀들은) 태자 앞으로 가서 각자 갖가지 기술을 바친다. 노래와 춤을 추고 이야기하고 미소 지으며, 눈썹을 치켜뜨고 흰 이를 드러낸다. 아름다운 눈으로 서로 보며, 가벼운 옷은 새하얀 몸 드러낸다. 요염하게 허리 흔들며 천천히 걷고, 거짓 친밀한 척 하며 점점 다가오기도 한다. 정욕이 그녀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대왕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니, 비밀하고 추한 곳 마구 드러내며, 그의 수치스런 마음마저 잊어버렸다. 태자 마음은 건고하여, 능름하게 얼굴 빛 변하지 않았으니, 마치 저 큰 용과 코끼리가, 못 코끼리에 둘러 싸여 있으나,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못 무리 속에 있으나 고요한 곳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⁷⁾

싯달타 태자의 父王 淨飯王은 태자가 未來世에는 出家修道하여 衆生을 구제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궁녀로 뽑아서 태자를 시중들게 한다. 말하자면 美人計를 시도해 본 것인데, 태자는 이들 아름다운 궁녀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녀들의 안쓰러운 노력을 가엾게 여기기까지 한다. 馬鳴은 <離欲品>에서 이처럼 궁녀들의 갖가지 교태와 몸짓을 묘사하여 인간이 가진 원초의 愛慾을 赤裸裸하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태자의 모습을 對比敍述하여 싯달타의 고결한 인격을 부각시켰다. 또 계속해서 싯달타의 親友인 優陀夷와 太子의 相互對話를 통해서 태자의 인격을 더더욱 理想化하고 있다. 즉 親友 優陀夷가 저 帝釋天王·阿伽陀仙人·婆羅墮仙人 등도 모두 女人의 유혹에 넘어간 바 있고, 愛慾은 젊은이의 특권인데 어찌서 애욕을 즐기지 않는가 하고 궤변을 펴자, 태자는 정색을 하면서 한 때의 애욕을 탐착하여 人生에 生老病死가 닥쳐오는 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면서 優陀夷에게 愛慾의 無常함을 설명해 준다. 이처럼 對話와 對比의 수법을 통해서 석가모니의 인격을 이상화시키는 것은 《佛所行讚經》 文體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7) 《佛所行讚經》(新脩大藏經, 第4冊). 제7 쪽 往到太子前, 各進種種術. 歌舞成言笑, 揚眉露白齒. 美目相明暎, 輕衣現素身. 妖搖而徐步, 詐親漸習近. 情欲實其心, 兼奉大王旨. 慢开效隱陋, 忘其慚愧情. 太子心堅固, 傲然不改容. 猶如大龍象, 群象衆圍遶. 不能亂其心, 處衆若閑居.

빔비사라왕(瓶沙王)과 수행자 싯달타가 주고받는 대화를 주로 서술하고 있는 <瓶沙王詣太子品>과 <答瓶沙王品>은 對話手法과 對比手法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원래 마가다왕 빔비사라왕과 싯달타의 회견기는 最古의 佛典이라 할 《숫타니파아타(經集)》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馬鳴은 이 간단한 기록을 토대로 하여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人間界의 王 빔비사라왕과 法界의 王 싯달타 태자가 각자의 입장에 서서 불꽃 튀는 對論을 전개하는 장면을 그려 내었다.⁸⁾ 《숫타니파아타》418번 ~ 424번의 계송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마가다왕 빔비사라가 成道 以前의 석가모니를 만난 적이 있고, 게다가 그는 출가수행의 길을 떠난 석가모니를 轉輪聖王이 되기 위해 수행자의 행색으로 변장하고 各地의 정세를 살피는 것으로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瓶沙王詣太子品>은 인간계의 왕인 빔비사라가 太子의 출가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변하는 내용이다. 그는 태자의 出家苦行이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

8) 《숫타니파아타(經集)》는 팔리어 대장경의 일부분이며 한역대장경에는 완전한 번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전이다. 여러 가지의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기불교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편찬해 낸 《南傳大藏經》제24권에 《숫타니파아타》가 실려 있는데 그 중 <大品·出家經>(同 24권, 151-153쪽)에 다음과 같은 회견기록이 있다.

“(No.418.)그 크샤트리아는 수레를 타고서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 그(석가모니)에게 가까이 가서 앉았다. (No.419) 앉고 나서 왕은 기뻐하면서 인사말을 나누었다. 그는 인사말을 한 뒤에 다음의 이야기를 하였다. (No.420) 그대는 젊고 어리도다 (인생의) 제 기에 도달한 청년이다. 빛나는 용모를 갖추고 있으니 단정한 크샤트리아인 듯하다. (No.421) 나는 (그대에게) 재물을 주고 싶소. 빛나는 그대는 꼬끼리를 선두로 하는 정예군대를 받아주소. 문노니 당신의 출생에 대해 말해주시오. (No.422) 왕이시여, 雪山의 중턱에 예부터 코오살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재물과(精進)의 용기를 갖추고 있고 솔직함을 갖춘 민족입니다. (No.423) 그 종족(의 선조는) ‘태양의 후예’라고 부르며 그 종족은 ‘석가족’이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 가문에서 나는 출가했습니다. 모든 욕망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No.424) 모든 욕망에 근심이 나타난 것을 알고, 집을 떠나는 것이 편안한 것임을 알고, (집 떠남을 위해) 精進을 (나는) 합니다. 나의 뜻은 이러한 精進을 즐깁니다.”

문에 '세상을 뛰어넘는 성스러운 왕자가, 걸식을 하면서 영예를 구하지 않고, 미묘한 몸에는 응당 향을 바를 것이거늘, 어찌서 스님의 가사를 걸쳤는가? 손에는 마땅히 천하를 움켜 쥐 것이거늘, 도리어 거친 음식을 받아들이네.(超世聖王子, 乞食不存榮. 妙體應塗香, 何故服袈裟. 手宜握天下, 反以受薄食.)'라고 탄식한다. 그는 태자의 명예욕을 부추기면서 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하는데, 이는 '法과 財物과 五慾을 갖추어야, 세상의 대장부라고 부를 수 있다.(法財五欲備, 名世大丈夫.)'라는 그의 언급을 통해 물질중심의 세계관이 더욱 부각된다.

섯달타 태자는 빔비사라왕의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이러한 그의 신념을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 <答瓶沙王品>이다. 태자는 나라와 군대를 내어서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빔비사라왕의 제안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精進이 결코 世間の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태자는 '다섯 가지 욕망은 보통 도적이 아니며, 사람의 착한 보배를 훔쳐간다. 속이고 거짓스러운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며, 마치 허깨비로 만든 사람인 듯 하다. 잠깐 생각해도 사람들을 미혹스럽게 하거늘, 하물며 그 가운데에 늘 거처하겠는가?(五欲非常賊, 劫人善珍寶. 詐僞虛非實, 猶若幻化人. 暫思令人惑, 況常處其中?)'라고 욕망의 덧없음을 강조한다. 또 '다섯 가지 욕심이 커다란 장애가 되어, 영원히 적멸법을 가린다. 천상의 즐거움도 오히려 좋지 않거늘, 하물며 인간세계의 욕망에 머무는 것이겠는가?(五欲爲大礙, 永障寂滅法. 天樂尙不可, 況處人間欲?)'라고 반문하면서 修行靜坐의 목적이 轉輪聖王 등의 세속적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석가모니의 인격을 초월적 존재로 표현한 것은 그의 치열한 구도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破魔品>과 <阿惟三菩提品>에서 잘 나타나 있다. 석가모니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장면은 最古의 佛典이라 할 《숫타니 파아타·精勤經》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破魔品>에서는 <精勤經>의 기록을 토대로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① (싯달타는 정진을 방해하는 악마에게 선언한다.) “이렇게 머물면서 최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는 모든 욕망을 바라지 않는다. 보라, 이 有情의 깨끗함을. 너의 첫 번째 군대는 욕망이고, 두 번째(군대)는 不樂이라고 한다. 너의 세 번째(군대)는 飢渴이며, 네 번째(군대)는 渴愛라고 한다. 너의 다섯 번째(군대)는 혼곤과 잠이며, 너의 여섯 번째(군대)는 두려움이라고 한다. 너의 일곱 번째(군대)는 의혹이며, 허영과 고집은 너의 여덟 번째(군대)이다.”⁹⁾

② (악마가 세 딸의 유혹과 협박이 통하지 않자 魔軍을 모은다.) “응당 다시 군대의 무리들을 모아 힘으로 (그를) 강하게 압박하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악마의 군대가 갑자기 모였다. (악마들은) 갖가지의 다른 형체가 있는데, 혹은 창을 들고 刀劍을 움켜잡았다. (그들은) 수많은 창과 쇠방망이, 갖가지의 싸움도구를 지니고 있다 돼지·물고기·나귀·말의 머리 가진 (魔卒), 낙타·소·코뿔소·호랑이의 얼굴 가진 (마졸), 사자·용·코끼리의 머리 가진 (마졸), 여타 세와 짐승의 부류, 혹은 한 몸에 많은 머리 가진 (마졸), 혹은 얼굴마다 한 개의 눈 가진 (마졸), 혹은 또 한 몸에 여러 개의 눈을 가진 (마졸), 혹은 커다란 배, 큰 키의 (마졸).”¹⁰⁾

<精勤經>을 보면 싯달타가 정좌수행에 열심일 때, 악마가 나타나서 그에게 精進의 노력을 그만두라고 권유한다. 싯달타는 정진수행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이렇게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모든 욕망을 떠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한다. 《佛所行讚經·破魔品》을 보면, 이미 많은 상상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악마는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딸, 곧 愛慾의 化身을 데리고 나타난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수많은 마귀들을 불러낸다. 馬鵑은 이렇게 과장된

9) 《經集·精勤經》, 《南傳大藏經》(日本, 제24권), 156-157쪽.

10) <破魔品>, 《佛所行讚經》, 新脩大藏經 第4冊 25쪽. 當更合軍衆 以力强逼迫 作此思惟時, 魔軍忽然集 種種各異形, 執戟持刀劍 戟樹捉金杵, 種種戰鬪具 猪魚驢馬頭, 駝牛兕虎形 師子龍象首, 及餘禽獸類 或一身多頭 或面各一目 或復衆多眼, 或大腹長身.

惡魔의 軍勢를 묘사하여 이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싯달타의 높은 인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싯달타가 깨달은 사람으로, 覺者에서 영원불멸의 法身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은 석가모니의 열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술에서 절정을 이룬다. 석가모니의 涅槃 前後의 사정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神力住壽品> · <離車辭別品> · <涅槃品> · <大般涅槃品> · <歎涅槃品> · <分舍利品> 등이다. 이 몇 편의 서사시들은 석가모니의 열반 소식을 듣고 비탄에 잠기고 괴로워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涅槃은 肉身的 죽음이지만 法身과는 무관하다는 佛身常住不滅의 思想이 엿보이고 있다. 즉, <離車辭別品>에서 장차 열반이 있으리라는 소식을 듣고 아난이 몹시 슬퍼하자 석가모니는 그를 위로하면서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유위하는 법이 만약 항상 존재하고, 변천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해탈일 것이다.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너희들이 얻어야 할 바를, 나는 다 싯법하였으니, 나의 이 몸을 어디에 쓰겠는가? 미묘한 법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寂靜의 경지에 머물리라.”¹¹⁾

이어서《佛所行讚經》의 마지막 장 <分舍利品>에서 여덟 나라의 王이 열반한 석가모니의 舍利를 나누는 광경을 서술함으로써 肉身으로서의 석가모니가 入滅한 것을 긍정하면서도 教法은 영원하다는 것, 즉 法身の 恒久不滅性을 馬鳴은 제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法身常住不滅의 관념은 後代의 대승경전(《維摩經》·《法華經》·《華嚴經》 등)에서 그대로 확대발전 될 뿐 아니라 무수한 부처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佛陀觀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11) <離車辭別品>, 《佛所行讚經》, 新脩大藏經 第4冊, 44 쪽 有爲若常存, 無有遷變者, 此則爲解脫 於何而更求, 汝等所應得. 我以爲說竟, 何用我此身. 妙語身長存, 我住我寂靜.

이상으로 《佛所行讚經》에서 서술된 ‘八相’의 격식이 석가모니의 인물 형상을 어떻게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석가모니 전기의 서술방법은 이후의 불교경전과 불교민간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唐代 말엽에 나타난 일련의 敦煌變文을 통해 우리는 석가모니의 人物形象이 민중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敦煌變文의 傳記敘事

1. 《太子成道經》

20세기 초, 敦煌에서 발견된 수많은 돈황문헌 중에서 敦煌歌辭와 敦煌變文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중국민간문학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 현재까지 돈황변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발견된 상당수의 변문들은 그 편찬시기가 唐代 後期에서 五代시기에 이르는 시기로 추측되고 있다.¹²⁾ 학자들은 돈황변문이 대량으로 나타났던 唐代 後期 이전에도 變文의 口傳이나 講唱이 성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孟棻의 <本事詩>나 吉師老의 <看蜀女轉昭君變> 등의 시에 보이는 기록 또는 저명한 俗講僧 文淑 등의 기록을 근거로 들면서 唐代 中期에도 이미 속강승들이 많이 활약하였고, 이들 속강승들의 저본으로 敦煌變文과 講經文이 많이 유통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¹³⁾ 사실 隋唐시기 이전의 北魏시기에 조성된 敦煌 莫高窟의 석굴벽화에서 적지 않은 本生圖와 經變相들이 발견

12) 《唐代變文》, 빅터 메이어 저, 전홍철·정광훈 역, 중국소설연구회보 50집, 중국소설연구회, 2002, 56-61쪽. 예를 들면 《破魔變》은 서기 944년의 刊記가 있고, 《金剛經講經文》은 서기 920년의 刊記가 있으며, 《維摩詰經講經文》은 서기 947년의 刊記가 있고, 《頻婆沙羅王后宮綵女功德義供養塔生天因變文》은 서기 953년의 刊記가 있는데, 이처럼 刊記를 찾을 수 있는 문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건이 더 많은 상황에서 돈황변문의 前史를 추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13) 《中國佛教文學研究》, 加地哲定, (京都) 同朋舍, 1979, 106-107쪽.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불교경전과 연관을 가진 변문들은 문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口傳이나 이야기식의 전승형태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¹⁴⁾

王重民은 <敦煌變文研究>에서 變文을 ‘佛經과 佛教故事를 講唱한 것’과 ‘中國歷史故事를 講唱한 것’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前者를 다시 ‘講經文’과 ‘석가모니와 佛教故事를 講唱한 변문’ 및 ‘불교고사를 講唱한 몇 편’의 세 가지로 세분하였다.¹⁵⁾ 왕중민의 구분에 의하면, ‘석가모니와 불교고사를 講唱한 變文’은 다음의 몇 편이다.

- ① <太子成道經>(기타 <太子成道變文>잔결본)
- ② <八相變>
- ③ <破魔變>
- ④ <降魔變文>
- ⑤ <難陀出家緣起>
- ⑥ <祇園因由記>

한편, 1997년에 출간된 黃征과 張涌泉 校注의 <敦煌變文校注>의 목차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생애와 연관을 가지는 變文은 다음과 같다.¹⁶⁾

- ① <太子成道經>
- ② <悉達太子修道因緣>
- ③ <太子成道吟詞>
- ④ <太子成道經變文(1-5)>
- ⑤ <須大擎太子好施因緣>

14) 前掲書, 109쪽. 예컨대 석가모니의 前生을 다루고 있는 막고굴 254·259·275호 등의 벽화와 成道 직전의 降魔故事를 다루고 있는 428호 등의 벽화는 北魏시대에 조성된 벽화이므로 佛教故事를 다루고 있는 변문들은 문헌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소급할 수 있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다.

15) 王重民, <敦煌變文研究>, <敦煌變文論文錄>, 周紹良 白化文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273쪽.

16) 黃征·張涌泉 校注, <敦煌變文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목차부분 참조.

- ⑥ 《八相變(1-2)》
- ⑦ 《破魔變》
- ⑧ 《降魔變文》
- ⑨ 《難陀出家緣起》
- ⑩ 《祇園因由記》
- ⑪ 《十吉祥》

이 10여 편의 작품을 王重民의 구분과 대조해보면 대체로 분류방법이 비슷하다. 王重民의 분류에서 변문 ①·②·③은 석가모니의 생애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분류되었다. 黃征 등의 분류에서도 변문 ①-⑦은 석가모니의 생애와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⑧-⑪은 석가모니를 다룬 변문으로 분류되었지만, ‘八相傳記敘事形式’을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석가모니 생애 중의 어느 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고 부각시킨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석가모니 생애와 직접 연관을 가진《太子成道經》 및 《八相變》등을 八相型敘事方式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太子成道經》의 경우를 살펴보자. 《敦煌變文校注》의 주석에 의하면, 《太子成道經》의 사본으로는 펠리오 1999호가 가장 완전한 내용을 갖춘 사본이고, 여타의 사본 스타인 548호·2682호·2352호 및 펠리오 2299호·2942호 등은 내용이 완전하지 못한 잔결본이다. 이처럼 현존하는 《太子成道經》의 사본이 5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적어도 唐代末期의 敦煌 일대에서 꽤 유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太子成道經》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싯달타 태자의 갖가지 前生 설화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운문으로 표현한 계승.
- ② 淨飯王이 기도하여 태자를 얻게 되는 과정.
- ③ 싯달타 태자 出生 전후의 이야기.
- ④ 四門游觀.

- ⑤ 출가 후 닥친 야소다라 태자비의 위기를 구출해줌.
- ⑥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韻文의 개송으로 표현함.

대체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太子成道經》은 ‘八相傳記敍事’의 격식을 빌리고 있으나 실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佛所行讚經》의 경우를 보면, 석가모니 탄생이전을 기록한 切率天地上觀察의 장면을 제외하면, ‘八相’ 중의 나머지 ‘七相’이 순서대로 모두 기술되어 있으나 《太子成道經》의 경우는 ‘八相’의 類型에서 빠진 부분이 적지 않다. 《太子成道經》은 그 편폭으로 보아 태자의 ‘出胎’를 둘러싼 이야기와 성장시기 중의 ‘四門游觀’이 전체 편폭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①의 경우는 韻文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싯달타 태자의 前生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석가모니의 전생이야기는 《佛所行讚經》에는 없는 부분이다. 다음에 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우리 스승 석가모니께서는 보리의 인연을 구하기 위해 과거 무량세계와 시간, 백천만겁의 세월에서 바라나국에 태어나셨다. ……(중략)…… 자력왕 때에는 다섯 아차가 다른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는 것을 보시고 배고픔의 핍박받는 것을 자력왕이 불쌍히 여겨 자신의 몸으로 보시하여 다섯 아차에게 먹였다. 가리왕 때에는 신체가 배고 찢겨서 마디마디 신체가 해체됨을 참았다. 시비왕 때에는 허벅지를 베어 그것으로 비둘기를 구하였다. 일광왕 때는 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두루 보시하여 그 지혜를 구하였다. 보등왕 때에는 몸을 파내어 천 개의 감실을 만들어 시방제불에게 공양하였는데 몸에 천 개의 등잔불을 태웠다.¹⁷⁾

17) 《敦煌變文校注》，前揭書，434쪽. 我本師釋迦牟尼求菩提緣，於過去無量世時，百千萬劫，多生波羅奈國。…… 慈力王時，見五夜叉爲啖人血肉，飢火所乏，其王哀愍，以身布施，饑五夜叉。歌利王(時)，割截身體，節節支解。尸毘王時，割股救其鳩鴿。月光王時，一樹下，施頭千遍，求其智慧。寶燈王(時)，剗身千龕，供養十方諸佛，身上燃燈千盞。

위의 인용문은 《太子成道經》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짧은 산문의 형식으로 석가모니의 本生話를 소개하고 있다. 本生話란 결국 印度民間의 傳統寓言故事가 불교의 윤회전생사상이나 보살사상과 결합하여 전생 이야기로 발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成佛을 이루기 전의 보살은 과거의 수많은 前生을 통해서 成佛을 위한 善行과 苦行을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이들 자력왕이나 가리왕이나 시비왕 및 월광왕 등은 심지어 육신마저 아무렇지 않은 듯, 아차나 악인에게 보시의 대상으로 던져주었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자기희생의 정신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또 감동을 불러 일으켜 깊은 신앙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③은 주로 태자의 탄생과 연관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잘 알려진 일화로 아시타 仙人이 天上의 징조를 보고 정반왕을 찾아와서 태자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淨飯王이 태자가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을 외치고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과연 이것이 좋은 징조일까 나쁜 징조일까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 아시타 仙人이 나타나 太子가 미래의 法王이 되리라고 예언했다는 것이다.

④의 四門游觀은 싯달타 태자가 城의 東西南北을 둘러보다가 生老病死의 現象들을 관찰하고 人生無常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이다.

나중에 어느 때 부왕과 함께 직할영지로 유람을 갔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농사지어 수확을 하고 지극히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시 땅속의 벌레를 보니 까마귀와 까치가 쪼아 먹으려 하므로 마음 깊이 자비

18) 《敦煌學大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9，82-94 쪽

돈황석굴에는 本生故事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벽화가 존재한다. 제275굴에는 시비왕본생고사화·월광왕본생고사화를 비롯하여 불전생고사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 제290굴에는 乘象入胎·相師占夢·樹下誕生 등 생애를 다룬 벽화가 그려져 있다. 또 275굴에는 四門游觀의 벽화가, 431굴에는 夜半逾城의 벽화가, 428굴에는 降魔變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이들 석굴예술이 당시의 승려는 물론이고 민간의 불교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추측하게 한다. 이는 돈황이 불교가 유입되던 길목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불교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돈황의 문학예술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와 연민심이 일어났으며 염부제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옥계의 번뇌를 생각하였다. ……(중략)…… 태자가 (성의 동쪽 문에 이르니 갑자기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황당하게 달아났다. 태자전하는 그를 보고 대단히 괴이하게 여겼다. 바로 마부 차익을 보내어 그에게 묻게 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우리 집에 임신부가 한 사람 있어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출산의 고통이 대단히 심하다고 하므로 급히 달려갑니다.” 태자전하는 (차익에게) 물었다. “한 사람에게만 비쁜 일이 있는가?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일인가?” “세상사람 뿐만 아니라 태자전하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태자는 듣고 나서 시름과 근심으로 기쁘지 않았으며 곧바로 환궁하였다.¹⁹⁾

四門游觀은 원래 석가모니의 八相傳記敍事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太子成道經》에서는 상당한 편폭을 차지한다. 그러나 《太子成道變文(5)》를 보면 이 부분을 매우 간략히 표현하고 있어 위의 인용문과 상당히 대조를 이룬다.²⁰⁾ 한마디로 말해 《太子成道經》에서 나타나고 있는 태자와 車匿의 대화는 대단한 생동감을 가지고 있으며 民間文學의 숨결을 잘 보존하고 있다.

2. 《八相變》

《敦煌變文校注》(黃征 張涌泉 校注)에 의하면 두 편의 《八相變》이 있다. 《八相變(1)》은 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雲字 24號로 분류되고 있는데 비교적 首尾完整한 사본으로 결여된 부분이 없는 사본이

19) 《敦煌變文校注》, 前揭書, 437-438쪽. 後於一時, 與父王俱遊至王田所. 政見時人耕種收刈, 極甚勞力. 復見壤蟲, 烏鵲啄之, 深生慈愍. 在於閻浮提樹下, 寂然而坐, 思念欲界苦惱. …… 到於東門, 忽見一人, 盲忙急走. 殿下見之非常驚怪. 便遣車匿問之, “有何速事?” “我緣家中有一產婦, 欲生其子, 痛苦非常, 所以奔走.” 殿下問言, “即一人有忙(之事)? 諸餘人總有?” “不餘世人, 殿下亦然.” 太子聞說, 愁憂不樂, 便却還宮.

20) 前揭書, 498쪽. 先到東門, 見生老, 恣車匿, “因何如老?” 車匿答曰, “有生不免.” 太子不樂, 便別, 却回而入.

다. 《八相變(2)》는 日本의 寧樂美術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결여가 심하여서 전체 내용의 일부만 남아 있는 사본이다.

《八相變(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석가모니의 前生談: 운문계송으로 되어 있는데 《太子成道經》의 서두와 거의 비슷함.
- ② 도솔천에 거주하던 보살이 金團太子에게 태어날 하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함.
- ③ 태자의 탄생을 전후한 사건.
- ④ 四門游觀.
- ⑤ 苦行과 成道.

한편, 《八相變(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아시타 仙人의 예언.
- ② 大自在天神의 예배.
- ③ 摩耶부인의 죽음.

《八相變(1)》의 서두 부분은 싯달타 태자가 태어나기 이전의 前生談을 운문의 계송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太子成道經》의 서두에 나오는 偈頌과 똑 같다.²¹⁾ 이미 앞에서 《太子成道經》의 서두를 인용한 바 있기에 대강 비교가 가능하지만, 이 일부분은 베끼는 듯이 문맥이 꼭 같다. 왜 같은가 하는 구체적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本生談을 고사로 하는 석굴벽화나 變相이 唐代 말엽에는 매우 흔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편찬자가 다른 변문을

21) 前揚書 507쪽. 爾時釋迦如來, 於過去無量世時, 百千萬劫, 多生波羅奈國. 廣發四弘誓願, 直求無上菩提. 不惜身命, 常以己身及一切萬物給施衆生. 慈力王時, 見五夜叉爲啖人血肉, 飢火所乏, 其王哀愍, 與身布施餒五夜叉. 歌利王時, 割截身體, 節節支解. 尸毘王時, 割股救其鳩鴿. 月光王時, 一一樹下, 施頭千遍, 求其智慧. 寶燈王時, 身千龕, 供養十方諸佛, 身上燃燈千盞.

보고 그대로 인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좌우간 이러한 투식이 생길 정도로 석가모니의 전기와 연관되는 고정된 표현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일로 금단태자는, 은밀하게 인간세계로 내려가네 오늘 아침 보살이 탄생하면, 복의 보답과 壽命은 어디인지? 16대국을 두루 살펴보니, 하나하나 모두 (보살을) 감당할 수 없네. 오직 카필라성이 있어서, 천자의 명성이 첫째라네. (그는) 사직만년의 국왕이요, 조상을 천대나 계승할 輪王이네. 내가 과거의 세존을 관찰해보니, 모두 이 佛國에서 태어났네. 살펴보고 나서 天界로 되돌아가더니, 보살을 따라 하계에 태어나네. 22)

위의 인용문은 보살이 태어나기전에 도솔천에 거주하면서 金團太子로 하여금 地上의 세계를 살펴보고 탄생에 적합한 땅을 찾도록 하는 이야기가 散文으로 먼저 서술되고 다시 그 내용을 韻文을 통해 강조한 부분이다. 이처럼 韻文-散文의 交互的 배치는 이 작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八相變(2)》의 ②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마혜수라천신(大自在天神)의 예배 광경은 확실히 後代에 부가된 전설로 석가모니의 神格化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라 하겠고, 이러한 신비한 이야기는 대중의 취향에도 맞기 때문에 편찬자들이 즐겨 삽입한 듯하다. 즉 정반왕이 태자를 안고 神廟에 갔을 때 神廟의 천신들이 왕에게 예배를 올리자 왕이 놀라는데 장차 法의 王이 될 아기에게 예배를 드린 것이다라고 天神이 설명했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중국적 표현을 구사하다가 어색하게된 부분을 하나 살펴보자.

도로에서 차례로 살펴보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삭발하고 물들인 옷을 입고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태자는 갑작스레 그를 보고 곧 마부 차익을 보내어 물게 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건대 이 곳에서 노닐고 있느냐?” 이 사람이 대답하길 “나는 승려입니다.”라고 하니 태자가 묻

22) 前掲書 508쪽. 當日金團天子, 潛身來下人間. 金朝菩薩降生, 福報合生何處? 遍看十六大國, 從頭皆道不堪. 唯有迦毘羅城, 天子聞名第一. 社稷萬年國主, 祖宗千代輪王. 我觀過去世尊, 示現皆生佛國. 看了却歸天界, 隨於菩薩下生.

기를 “무엇을 승려라고 하는가?”라 하니 이 사람은 “모든 욕망이 이미 다 없어지고 번뇌가 소멸했습니다. 밥은 바릿때에 있고 옷은 시렁위에 둥니다. 세상의 은혜나 사랑을 버리고 오직 부처의 과보와 보리를 구합니다. 번거로움을 좋아하지 않고 커다란 가르침을 열심히 닦는 것 이것이 승려입니다.” 태자는 듣기를 다 마치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에서 내려 경건한 마음으로 삼보인 승려에게 예배하였다. 곧 묻기를 “스님은 누구의 제자인가요?”하니 승려가 말하기를, “나는 三敎(儒佛道)의 큰 스승, 四生의 자애로운 아버지, 人天의 우두머리 苦海를 건너는 배를 만들어 주신 석가모니 여래가 나의 스승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²³⁾

四門游觀 중의 한 장면이다. 이 작품에서 四門游觀 을 다른 부분은 상당히 긴 편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마지막으로 승려를 만나서 出家行을 결심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역사사실과 상반되거나 편찬자 임의로 내용을 편성하였는데, 예를 들면 스님은 누구의 제자인가라고 묻자 三敎의 큰 스승인 석가모니가 스승이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확실히 역사사실과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승려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唐代의 승려라면 누구나 석가모니의 제자라는 대답을 했을 것이므로 이런 문답을 구성한 듯하다. 결국 이러한 문답 자체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傳記敘事方式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중국적 글쓰기로 변용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석가모니의 생애, 특히 ‘八相’을 다루고 있는 돈황변문들이 꽤 되지만, 이들 변문들이 ‘八相’의 모든 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八相’ 중의 어느 한 가지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부각시켜서 대중에게 공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本考에서

23) 前掲書 512쪽. 在於路上觀看之次, 忽見一人, 削髮染衣, 徐行緩步. 太子忽見, 卽遣車匿問之, “君是何人, 在此遊覩?” 此人答曰, “我是師僧.” 太子却問, “何名師僧?” 此人答曰, “諸漏已盡, 煩惱頓除. 飯在孟中, 衣生架上. 捨割世間恩愛, 唯求佛果菩提. 不戀煩喧, 精勤大敎, 此名師僧.” 太子聞已, 歡喜非常, 下馬虔恭於一心, 合掌禮拜於三寶. 便問, “和尚是誰之弟子?” 和尚答曰, “我是三敎大師, 四生慈父, 爲人天之道首, 作苦海之舟船. 釋迦牟尼如來是我之師父.”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변문 《悉達太子修道因緣》·《破魔變》 등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이다. 《悉達太子修道因緣》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太子成道經》과 비슷한데, 이야기의 중점은 출생 전후의 神異한 사건·궁중생활에 대한 태자의 고뇌·四門游觀·悉達태자가 출가한지 6년 만에 임신하여 불륜의 의심을 받게 된 태자비 야쇼다라를 佛陀가 구원한 일 등에 있다.²⁴⁾ ‘八相’의 측면에서 보면 생애 전반부의 몇 가지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破魔變》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주요내용은 싯달타 태자의 雪山修道로 인해 魔王의 궁전이 흔들리는 변괴가 생기자, 이에 놀란 魔王은 魔兵의 大軍을 거느리고 地上으로 내려와 보리수 아래에서 靜坐修道하는 太子를 협박한다. 그러나 태자는 이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더더욱 당황한 魔王은 자신의 세 딸로 하여금 태자를 유혹하게 한다. 태자는 因果의 법칙을 설명하며 魔女들에게 경고한다. 마녀들은 오히려 오기를 부리며 더욱 교태를 떨다가 갑자기 노파로 변해서 비참한 신세가 된다. 이러한 내용은 분명 전설에서 취재한 것으로 민간문학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²⁵⁾ 이처럼 돈황변문에 나타나는 ‘八相’敍事의 類型이 몇 가지의 석가모니행적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은 대중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돈황변문의 민간문학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IV. 結 論

5세기 중엽, 劉宋의 승려 寶雲이 漢文으로 번역한 《佛所行讚經》은 印度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석가모니 傳記에 속한다. 2세기 초반에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시인 馬鳴에 의해 지어진 이 長篇敍事詩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장편서사시형식으로 佛陀의 생애를 재구성하였다.

24) 黃征 張涌泉 校注, 《敦煌變文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468-475 쪽.

25) 黃征 張涌泉 校注, 《敦煌變文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531-536 쪽.

이 때문에 後代에 ‘八相傳記敘事方式’으로 알려진 석가모니의 전기서술방식은 馬鳴이 최초로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傳記敘事는 역사자료를 취사선택하면서 신화적 자료들을 서술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전통적 역사기술방법과 달리 환상과 상상력이 풍부한 서사방식이라고 하겠다. 《佛所行讚經》에서 八相敘述의 重點은 태자의 수도과정이나 成道의 순간 또는 열반의 과정 등등, 몇 몇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대체로 보아 석가모니의 전 생애를 골고루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돈황변문은 아마도 불교의 깊은 영향에 의해 발생되고 발전한 민간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太子成道經》과 《八相變》 등 일련의 작품은 ‘八相傳記敘述’의 형식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다만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을 창작하다보니 佛敎經典의 엄숙한 해설서인 講經文의 그것과 달리, 경전의 이야기를 변용하기도 하고 神異한 일화나 민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끼워 넣기도 하였다.

變文의 전승관계나 講經文과 변문의 상호관계 등은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석가모니의 형상이 經典의 翻譯文體를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서사형태가 확립되고, 각종 민간문학서사방식에 어떤 형태로 녹아들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今後의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석가모니형상의 서사방식과 돈황변문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參考文獻>

黃征 張涌泉 校注, 《敦煌變文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寶雲 譯, 《佛所行讚經》, (日本) 大正新脩大藏經 제4책.

《숫타니파이다(經集)》, (日本) 南傳大藏經 제 24권.

- 慧皎 撰, 《出三藏記集》, 北京 中華書局, 2003.
- 加地哲定, 《中國佛教文學研究》, 京都 同朋社, 1979.
- 에띠엔 라모뜨 저, 호진 역, 《인도불교사》(제2권), 서울 시공사, 2006.
- 히라카와 아끼라 저, 아호근 역, 《인도불교의 역사》, 서울 민족사 1994.
- 侯傳文, 《佛經的文學性解讀》, 北京 中華書局, 2004.
- 平等通昭, 《印度佛教文學의 研究》, 橫濱 印度學研究所, 1970.
- 項楚, 《敦煌變文選注》, 成都 巴蜀書社, 1989.
- 《佛所行讚經》, (범구경외) 한글대장경, 서울 동국역경원, 2002.
- 周紹良 白化文, 《敦煌變文論文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 유진보 저, 전인초 역,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 김승호,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서울 민족사, 1992.
- 빅터 메이어 저, 전홍철 정광훈 역, 《唐代變文》, 중국소설연구회보 제50
집, 중국소설연구회, 2002.
- 박완호, <돈황화본소설의 성립에 관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중국소
설연구회, 서울 학교방, 1995.
- 박칭환, <인도초기불교의 진륜성왕사상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논문
1996.

<中文提要>

中國古代敘事文學有許多文學體裁, 例如有諸子散文·歷史散文·文言小說等. 其中, 歷史散文有不少人物傳記名篇 《史記·列傳》中的許多人物形象揭開了人物傳記敘事的新局面. 雖然《史記·列傳》也有不少批判封建社會的因素, 可是整體來說其標準還有所謂‘春秋筆法’的因素.(即儒家史官的實錄精神) 從而中國傳統的傳記敘事模式非常重視一個歷史人物的家系·歷史貢獻·社會影響等因素. 在某一種意義上, 佛經中的人物傳記也有與儒家列傳相同的部分.(例如佛經的作者也寫了佛家弟子的歷史貢獻·社會影響等) 然而在另一個意義

上，漢譯經典中的傳記敘事方式則與儒家列傳的敘事方式截然不同。

例如，釋迦牟尼傳記的敘事雖然也有《史記·列傳》相同的部分，可是另外也有跟儒家實錄完全不同的部分。(釋迦牟尼的一生有許多類似神話一樣的故事)釋迦牟尼八相成道傳記中所謂的‘八相’就是他一生中的主要事件。(降生·入胎·出胎·出家·降魔·成道·轉法輪·涅槃)馬鳴尊者所寫的《佛所行讚經》就是一部最早綜合撰寫的‘八相成道’故事之佛陀傳記。他用許多原始佛經的材料成就了一篇完整的佛陀傳記。(劉宋時代)寶雲法師翻譯的《佛所行讚經》就是馬鳴尊者寫的佛陀傳記。(共計五卷二十八品)此後，許多佛教著作都採取‘八相成道’的敘事模式。敦煌變文也具有關‘八相成道’模式的變文著作。例如《太子成道經》的主要內容是悉達太子的降生·四門游觀·救援太子妃等故事情節。《太子成道經》的內容大概採用了‘八相成道’模式的某一個部分擴大了另一個通俗的民間故事。《八相變》也有悉達太子的本生故事·四門游觀等‘八相’故事。

從而‘八相成道’的敘事模式就成爲中國古代民間通俗文學的一個重要敘事模式。也許這種敘事模式有很大的通俗性·民間性。故此我們應該注意這‘八相成道’敘事模式。

주제어: 傳記敘事, 佛陀傳記, 八相成道, 佛所行讚經, 敦煌變文, 太子成道經, 太子成道變文, 八相變.